

● 시무식



2009년 1월 2일 “시무식”을 시작으로 새해 한국천문연구원의 업무가 개시되었다. 시무식에서는 박석재 원장의 신년사가 진행되었고, 모든 직원이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2009 동계 교원천문연수

우리 연구원은 1월 5일부터 10일까지 “2009 동계 교원천문연수”를 시행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 교원천문연수는 동계와 하계 방학 기간 동안 과학 교사 및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초등과 중등 2기로 나누어 2박 3일 동안 18시간의 강의로 진행된다. 천문학 일반 강의 및 천문실험, 천문관측 및 연구원 시설견학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수

에는 초등부에 50명과 중등부에 46명이 참가하였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신입직원 6명도 이번 연수에 참석하였다.

● 연구원 방문의 날

우리 연구원은 학생 및 일반인들의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연구원 방문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은 연구원 소개 및 동영상 상영, 천문 강연 및 다양한 기념품이 있는 천문퀴즈, 연구시설 탐방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전등록이나 예약 없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올해 120명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 국가참조표준 천문역법 데이터센터 지정



지난 1월 12일 우리 연구원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천문역법 데이터센터”로 지정되었다. 천문역법 데이터센터는 기존의 6개의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에서 새로이 추가된 6개의 센터 중에 하나로, 고천문연구그룹이 정확도와 신뢰도에 기반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 데이터센터는 태양 및 달이 뜨고 지는 시각, 태양의 고도, 24절기 시각 등의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및 건축시 일조권 확보, 농수산업 현장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백산천문대 천문연구연수



지난 1월 6일에서 15일 동안 “소백산천문대 천문연구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는 3박 4일 동안 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소백산천문대 소속의 연구원이 한 팀이 되어 천문학과 천체관측을 연구하는 것을 교육하고자 매년 겨울방학에 실시한다. 4회 째를 맞이한 2009년에는 5개의 고등학교 연구팀(울산과학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인천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이 참여하여 천체관측과 자료처리, 분석, 논문 발표 등 일련의 천체관측연구 과정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 천문학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지난 12월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문학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천문학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78.7%인 반면, 천문학에 대한 관심은 35.8%, 인지도는 15.1%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

다. 또한 천문학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것은 인터넷과 TV, 라디오가 가장 높았고 이어 신문, 잡지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UN이 선포한 세계 천문의 해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12.5%로, 세계 천문의 해 관련 프로그램들이 천문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3.9%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3.1%의 오차를 포함한다.

● 네이버 “오늘의 과학” 콘텐츠 지원

지난 1월 1일 검색포털 사이트인 네이버(<http://www.naver.com/>)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메인페이지 하단에 “오늘의 과학”이란 코너가 신설되었다. 오늘의 과학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학을 이미지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매일 한 건의 콘텐츠가 소개된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홈페이지에서 소개되었던 이주의 천체사진을 간략한 설명과 함께 지원해주고 있다. 첫 번째로 1월 10일에는 ‘재미난 별명의 성운들’이란 제목으로 장미성운, 말머리성운 등이 소개되었다. 두 번째로 1월 31일에는 ‘태양이란 이름의 별’이란 제목으로 태양의 다양한 모습이 소개되었다. 이 글에는 첫날 20페이지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댓글들을 보면서 일반인들이 천체사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오늘의 과학에서 매달 10여 점의 천체사진을 소개할 예정이다.

